

#### 4월 8일(월) / 왕하 8-10장

▶**내용요약:**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은 여호람이었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기에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게 하였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

▶**질문:**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 사람으로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아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한 지도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전심으로 여호와와 율법을 행하지는 않았다. 쓰임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안타까운 지도자였다.

#### 4월 11일(목) / 왕하 17-19장

▶**내용요약:** 이스라엘 왕 호세야 제 9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가다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하였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앗수르의 침입과 위협 앞에서는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였다. 앗수르는 남유다 정복이라는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왕하 17장)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기는커녕 세속의 포로가 되어 버린다.

#### 4월 14일(주일) / 대하 1-3장

▶**내용요약:** 1장은 넷으로 나뉜다. 첫째,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소개한다. 둘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스마엘 자손들을 소개한다. 셋째, 이삭의 자손 가운데 에서의 자손들을 소개한다. 넷째,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소개한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아닌 후손들이 소개되었다면, 2장에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이 소개된다. 먼저 야곱의 12 아들이 소개된다. 그 이후로는 유다의 자손들이 소개된다. 그중에서

#### 4월 9일(화) / 왕하 11-13장

▶**내용요약:** 이스라엘 왕 예후 제 7년에 유다에서는 요아스가 7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다스렸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대로 행하여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릴 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일곱 해를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걸으며 악을 행했다.

▶**질문:**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 그런 와중에도 목숨을 건져 살아 남았다가 7세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왕들의 통치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이것처럼 전 생애,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것으로 왕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

#### 4월 12일(금) / 왕상 20-22장

▶**내용요약:**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낮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렸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성전에서 여호와와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따라 남유다 왕국 전체가 개혁되도록 하였다.

▶**질문:** 병들어 죽게 되자 병이 낫도록 기도했다. 병이 낫자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다.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한 왕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혹은 공동체의 삶을 개혁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진다.

도 다윗의 가계와 관련된 유다의 자손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압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야가 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솔로몬을 포함하여 열세 명이 되었다. 이후 솔로몬의 아들들이 소개된다. 다윗 언약에서와 같이 다윗의 가문에서 자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

▶**질문:**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 4월 10일(수) / 왕하 14-16장

▶**내용요약:** 유다 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하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만 이스라엘 국경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였다. 유다 왕 아사랴(웃시야의 다른 이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렸다. 격리된 궁에 살다가 죽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 살룸, 브나훔, 브가히야, 베가로 이어지는 동안 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반역이 반복되었으며, 왕들의 재위 기간도 짧았다.

▶**질문:**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렸던 왕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금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 4월 13일(토) / 왕하 23-25장

▶**내용요약:** 요시야 다음 왕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그를 폐위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웠다. 그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에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다. 18세에 왕이 되어 3개월을 다스렸다.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맛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하였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

▶**질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다. 망할 때는 연속해서 잘못된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깨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가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변화가 필요할 때면 이런저런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하기 마련이다. 약속을 제대로 하고 지키면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한 약속은 자주 지켜지지 않고 상실감을 안겨준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